배우자는 충전기가 아니다

(마태복음 19:1~15)

3.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 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배우자는 충전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배우자는 충전기가 아니다'
요즘 이혼은 결코 놀랄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혼을 경험하셨거나 간접적으로 친인척의 이혼을 지켜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을 보면 학자들 간에 논쟁이 심한 구절이 있습니다. 9절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한 이유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신명기 24장 1절의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라는 말씀을 인용하며 결혼전후의 문란한 사생활을 의미한다고 해

석합니다. 다만 유대율법을 염두에 두자면 이러한 문란한 사생활은 이혼이 아니라 돌에 맞아 공개처형을 받아야 할 죄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음행한 이유란 결코 단순히 문란한 사생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9절을 보면 아내의 '음행한 이유'와 남편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가 대칭적으로 나타납니다. 즉 음행이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굳어진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의 유대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신앙적 의도가 담겨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백지화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솔직함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잘못을 외면한다면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담겨있는 신앙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타났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본문 이후의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어린아이들을 언급하시며 천국이 이러한 자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앞서 18장 3절에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용서 또한 자신을 낮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다른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편 오늘 19장에서는 앞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얻기 위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본문 또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은 자의 자아의식을 가짐으로써 완성됩니다. 마음이 거지 나사로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 세상의 가치를 가져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어른처럼 높아지는 것이고 지옥에 간 부자와 같은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게 지음 받았기에 채워짐으로써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가치를 떨쳐내어 자기를 낮춘 자로써 기쁘고 만족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마음을 채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용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부부관계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규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람에게서 재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춤이 완성된 결과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또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 말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말씀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던 18장 22절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하라는 것은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질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 이후에는 다시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이 그랬듯이 오늘 살펴 볼 부부관계나 내일 살펴볼 부자의 재물에 관한 이야기도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다는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생애나 환생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될 뿐이지 결코 이 세상에서 다른 생애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비유적으로 생각할 때에 어린 아이처럼 낮아지면 그러한 마음가짐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밉고 싫어서 다음 생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살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상태에 처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혼이라는 표면상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 지금의 배우자를 그렇게 좋아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현실적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배우자를 마냥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배우자는 결코 좋아해서는 안 되는 대상입니다. 배우자는 내 마음의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기쁨과 만족에 대해 무관하기 때문에 설령 다음 생애에 다시 결혼할지라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입니다.

배우자는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한 충전기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갈등과 파경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충전기가 아닌 사람에게서 충전을 기대하니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헛된 기대를 성경은 완악함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사회에서는 모세 시대로부터 예수님의 시대까지도 여자의 인권은 매우 낮았습니다. 인구수에 계수되지도 않았으며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유대법상의 이혼 또한 남자를 중심으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요새처럼 자녀양육권이나 재산분할의 문제를 철저하게 가리면서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혼하자고 증서를 쓰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러한 이혼 규정은 아내의 사소한 잘못에도

일어날 수 있었으며 심지어 다른 여자를 얻기 위해 아내를 내쫓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8절에서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시대에 완악한 남자로부터 해방되는 길로써 이혼제도가 만들어졌으나 남자들의 완악함으로 인해 그조차 악용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9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참고 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내나 남편이라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애초에 기대를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행복의 기대를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 남편은 아내를 통해 기쁨과 만족으로 충족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에 결국 서로를 탓하며 파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완악함의 정체입니다.

몇 년 전에 트로트 가수 홍진영 씨가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를 불러서 대히트를 했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 당신 없인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 당신은 나의 배터리"라는 구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랑을 가득 넣어주세요 / 가슴에 넘치도록 넣어주세요 /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 나 지금 외로워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자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이 노래는 금지곡입니다. 홍진영 씨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배우자에게 마음의 충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대하는 순간부터 결혼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설령 이혼하지 않더라도 참고 살아야 하는 지옥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을 살라고 결혼제도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6절을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사람이 짝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짝을 이루고 부부가 되는 것은 나의 의지나 결단이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짝 지어지게 만드신 결과입니다. 따라서 나의 의지나 결단과 노력이 개입될 때에 문제는 발생합니다. 내가 좋아서 붙들고 내가 사랑해서 붙들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붙잡는다면 부부관계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스탠버그는 “사랑의 삼각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열정, 친밀감, 책임감의 세 꼭짓점의 균형이 맞을 때에 진정한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대문호인 톨스토이 또한 “결혼은 잘 맞는 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 맞는 짝이 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멋진 이야기들입니다만 신앙적으로는 철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삼각형의 균형을 이룰 수도 없고 맞는 짝이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부부는 결코 나의 노력을 통해 유지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괜히 참으며 생지옥을 살 필요도 없지만 함부로 이혼을 해서도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와 같은 심정으로 부부관계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배우자를 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채워주는 충전기로 여깁니다. 좀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스스로 배우자의 충전기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이러한 시도 또한 결혼을 파경으로 이끄는 또 다른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결혼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가장 원초적인 관계입니다. 이 부부관계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처럼 낮아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 속에는 인간이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이 담겨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만남을 이루고 관계를 맺으면서도 그 누구도 서로의 충전기는 되어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 개개인은 스마트폰입니다. 서로 문자를 보내고 통화를 하고 SNS를 하고 만남과 교제를 가집니다. 나와 배우자가 소통할 수는 있어도 서로를 채우는 충전기는 될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은 충전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지 않으면 사용될 수 없는 스마트폰이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러한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도록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야 할 마음을 열정과 책임감과 친밀감으로 충전시키라고 속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심리학적 이야기는 너무나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결혼을 해본 적도 없이 이야기한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제 나이가 60이 넘었고 결혼하여 몇 십 년이 되었는데 현실적으로 서로에 대해 어떤 열정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심지어 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조차 책임감을 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서울의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3년을 제외하고는 고정적으로 사례비를 받았던 적도 없습니다. 남는 돈이 있으면 선교사님들께 다 드렸기 때문에 아내에게 일정한 생활비를 줘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책임감에 대해 운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에 휘둘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배우자를 통해 마음을 충전하려고 하는 것이 완악함입니다. 사

람은 결코 사람을 통해 충전될 수 없으므로 배우자 또한 충전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어린 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을 인간관계의 출발점이 되는 부부관계에 적용해보자면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는 아내나 남편을 필요로 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다른 스마트폰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전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배우자를 대하기에 앞서 하나님으로 마음이 충전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지 않고서 이루어지는 부부관계는 완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되는 부부관계가 이러하니 다른 모든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나는 어떤 사람도 나의 충전기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빨대를 꽂고 기쁨과 만족을 빨아들이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충전기가 필요한 스마트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일과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으로 충전이 되었는가를 확인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서 사람을 만난다면 바른 교제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충전 된 전기를 쓰며 작업을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평강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방전되었다 싶을 때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충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몰랐기에 이렇게 편리한 비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비유로 삼아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문제는 단순명료해집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스마트폰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충전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부부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생활화는 하나님이라는 충전기에 이어진 전선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과 충전기의 관계에 비유하자면 사도 바울은 아예 충전기에 연결된 상태로만 살았던 셈입니다.
스마트폰은 충전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충전하고자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는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열정이든 친밀감이든 책임감이든 하나님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속은 거짓입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말씀이 아니라면 거짓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상황과 사실에 내용이 부합한다고 해서 진실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을 잘 설득해서 계약을 따내서 돈을 벌어야겠다, 저 여자를 기필코 애인으로 삼고야 말겠다, 자녀가 공부에 집중하도록 다그치겠다.”라고 하는 모든 말들이 당장은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하나님으로 충전되어서 나온 말이 아니라면 관계를 파괴하는 거짓말들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전되지 않았다면 팔십 평생을 살면서 백만 명을 만났을지라도 단 한 번의 진실 된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온전한 만남을 이루지 못했는데 행복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배우자는 충전기가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기쁨과 만족을 기대하는 것은 완악한 것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상적인 사람과 함께 해도 행복은 결코 주어질 수 없습니다. 클레오파트라 같은 절세미인이라도 마음은 채울 수 없으며,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라도 마음은 채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부관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으로 충족됨이 없으면 충전시키지 않은 스마트폰과 똑같습니다. 마귀는 이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열정이나 친밀감이나 책임감 같은 말들로 속입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의도와 목적의식을 통해 충전되게 만들어 인간관계를 맺도록 합니다. 이 거짓된 만남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누구를 만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마음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보냄으로써 하나님으로 충전된 상태에서만 인간관계를 이루어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 기도가 쉬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얼마나 오랜 동안 배우자를 충전기로 여기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 부부간에 갈등과 불화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마음이 주님 따라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으로 충전되기 전까지는 배우자조차 대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전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인간관계는 거짓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하나님으로 충전되기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